

전통문화 체험 '세시풍속 놀고-있다. 대보름'

남원시, 정월대보름 맞아 27일~3월 3일 광한루원 일원서 개최

남원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통 세시풍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체험형 문화행사 '세시풍속 놀고-있다. 대보름'을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광한루원 일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연휴에 남원을 찾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됐다.

행사는 광한루원 월매집 오자교, 완월정, 광한루 등 공간의 특성을 살려 구성, 주요 내용은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소원지 달기, 가족·친구 단위로 즐기는 율놀이(율점)체험, 오자교를 건너며 액운을 막는 다리밟기(답교놀이),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달맞이 프로그램, 전통 풍속을 재현한 '내 더위 사기'라(더위팔기),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세시풍속 놀고-있다. 대보름' 포스터

부럼깨기 체험 등이다

특히 부럼깨기 체험은 정월대보름 아침 부럼을 깨물며 한 해의 무병장수와 복을 기원하던 전통 풍속을 재현한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행사는 광한루원 굿이어(Good Year)라는 이름으로, 선조들의 놀이와 풍속에 담긴 뜻을 되새기며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간 체험을 통해 남원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알릴 계획이다.

행사 기간 광한루원을 찾는 방문객이라면 별도의 사전 예약이나 참가비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시청 관광시설과(063-620-8924)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오미선 관광시설과장은 "이번 행사는 대규모 공연 중심이 아닌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행사"라며 "세시풍속 체험을 통해 광한루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특별한 겨울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이들 새해 꿈·소망' 화폭에 담다

익산소리문화의 숲, 새해맞이 어린이 그림 전시 개최

익산시가 예술을 통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다.

시는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익산소리문화의 숲에서 '새해맞이 어린이 그림 전시'를 열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복합문화공간인 익산소리문화의 숲 2층 '소리화랑'에서 진행되며, 새해를 바라보는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희망이 담긴 다양한 작품을 다음달 31일까지 전시한다.

시는 지역 전시공간을 활용해 어린이들의 창작 역량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모전 형식의 전시를 기획했다.

공모는 '2026년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꿈과 소망'을 주제로 지난해 12월 진행됐으며, 13세 이하 어린이가 134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시장에는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수상작을 비롯해 어린이들의 개성과 상상력이 담



긴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관람 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익산=이재훈 기자

순창군,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 접수

순창군은 지역 내 19~20세 청년들이 공연과 전시, 영화를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계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추진하는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대한민국 만 19~20세 청년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06~2007년 출생 청년이며, 2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생애 최초 1회 지

원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청년문화예술패스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발급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발급된 지원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지정된 예매처를 통해 공연·전시·영화 관람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7월 31일까지 사용 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어 기간 내 사용이 필요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태와 굿때

4부 '굿때와 전쟁' (29)

이 자식이 왜 이곳에?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남준은 주로 전투 현장에 임하는가 낮에는 산에서 은거하고 밤에 움직이고, 병희는 유격대원의 식사 준비와 빨래, 의복 수선 등 보급 일을 아지트에서 다른 여자 대원과 함께 했다.

유격대 생활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아지트를 옮긴다는 하는 일이 자자했는데 남준과 병희는 서서히 유격대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서로 말을 나눈 것은 아니지만 남준과 병희는 언제든 억울하게 생을 달리할 가족들을 위해 굿을 크게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각자의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빨리산 생활과 별개로 남준은 남준대로 병희는 병희대로 힘든 신체적 핸디캡이 있었는데 남준에게는 작년 10월부터 창궐한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병이었고, 병희는 지난 5월부터 갑자기 시력이 급격히 후퇴하면서 앞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다.

피부병이나 시력의 퇴화는 유격대 내에서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전투에서 총상을 입은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더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늦은 밤 아지트를 선운산 용문공에서 잠당계곡으로 옮기면서 밤이 어두운 병희를 남준이 옆에서 거들게 되었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는 때를 틈타 남준은 병희를 다른 대위들과 떨어진 바위로 데려갔다.

"생각보다 눈이 더 많이 안 좋아지겠구나."

"그러게 말이지, 네 몸은 어때? 가려움증."

"자꾸 진물이 나오고 피부가 이상해져서,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긴 한데." 병희가 남준 쪽으로 상체를 더 가까이 하며 입을 손바닥으로 막고 속삭였다.

"우리 이렇게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현재는 기회가 되면 나가야지. 하지만 지금은 너무 감시가 심해."

잠당계곡으로 옮기고 아지트를 정비하고 있을 때 탕크병단으로 파견을 갔던 대원들이 돌아왔다. 남준과 병희는 처음 대하는 대원들이었다. 대원들은 서로 반갑게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눴다.

"어? 이 자식이... 왜 이곳에?"

남준이 다른 대를 해한하고 있는데 파견 나갔다 부끄러운 대원 하나가 남준을 보며 말했다.

왜, 내가 여기 있으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 남준은 얼른 시선을 그에게 집중했다. 웃이 달라서 못 알아봤을 뿐이었

다.

그는 활전의 박창수였다. 남준은 얼굴에 붉은 당근즙을 바르고 말았다. 박창수는 부리나케 바테우에게 달려갔다.

"소대장 등등, 어떻게 저놈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박창수는 뭔가 짙은 것을 바로잡겠다는 일념으로 박대우를 바라봤다. 박대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싱거운 두로 남준이 이곳에 있게 된 경위를 말했다.

"왜, 우리 유격대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

"당연히 있고말고요!"

박창수는 공지에 불 맞은 땅까지처럼 뛰면서 진정할 줄을 몰랐다. 바테우는 눈으로 뭐가 있다고 물었다.

"저 녀석은 학도대에서 활동했던 놈이요. 학도대요! 제가 작전을 나가서 저 녀석이 학도대에 있는 것을 봤다니까요!"

대원들 모두가 시선을 남준에게 쏠렸다. 남준은 할 수 있다면 하늘을 나는 연이 되어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날아가고 싶었다. 땅으로 개집 수도 하늘로 솟을 수도 없는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다.

남준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모두 날카롭게 성을 내고 있는 뿔사기였다. 가시들이 날아와 남준의 팔과 다리, 얼굴 문몸을 찔러 갔다.

박창수는 필멸 뛰고 다른 대원들도 고개운 눈들로 남준을 쳐다보자 바테우도 어쩔 수 없는지 같은 눈으로 남준을 한참 쳐다봤다.

"알았다 알았다, 조금 있다가 부중대장님하고 상의해보자."

바테우는 손바닥으로 공기를 누르면서 날뛰는 박창수를 진정시켰다.

▶ 서평 - 안호영 '에너지=반도체 안호영의 혜안'

전북의 백년대계, 대한민국 중심의 꿈으로

전북의 미래를 둘러싼 물음은 언제나 무거웠다. 인구 감소, 산업 기반 취약,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전북은 오랫동안 '변방'이라는 단어와 함께 불려 왔다.

그러나 그 침묵과 체념의 시간을 깨고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한 정치인의 고뇌와 치열한 성찰이 한 권의 책으로 어렵게 탄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장이 펴낸 안호영의 혜안은 단순한 정책 제안집을 넘어 전북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려는 비전서라고 할 수 있겠다.

총 185쪽 분량의 비교적 적은 분량이지만 알찬 내용의 이 책은 프롤로그 '공공의 선을 향한 여정'으로 시작해 △제1부 에너지 대전환·반도체는 왜 전북인가? △제2부 미래를 선점하는 전북의 4대 비전 △제3부 행정전북의 지도를 바꾸다 - 통합과 상생의 행정대개조 △에필로그 '대동 세상의 꿈' - 대한민국과 전북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며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저자는 오는 3월 2일 전주대학교 슈퍼스타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많은 독자들과 함께 직접 도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호남권 연대 유지 중부권 사업과 연결 '양손잡이 전략' 제안

책의 첫 장은 정치인 이전의 인간 안호영을 만나는 자리다. 노동 현장과 농촌 마을을 누비며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시절의 기억은 책 전반을 관통하는 정서적 뿌리다. 법의 문턱조차 넘지 못해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는 '법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신념을 가슴에 새겼다고 고백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그의 정치철학을 설명하는 핵심 문장으로 읽힌다. 의뢰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공감,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정의의 태도는 정치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저자는 변호사로서 재판에 임하면서 승소 가능성이라는 법률적 계산보다 상식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더 중요하게 여겨 왔다고 밝히며, 그 신념이 오늘의 정책 구상으로 이어졌음을 담담히 풀어낸다.

이 대목에서 그는 전북의 역사적 정신을 언급한다. 조선시대 사상이 정여암이 꿈꾸었던 대동 세상과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의 평등 정신이 오늘의 전북에도 살아 숨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온기가 정치의 개혁으로 확장되는 순

간이자 과거의 정신이 현재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다.

책의 중반부는 전북의 현실을 가장 날카롭게 드러내는 부분이다. 저자는 627km에 이르는 초고압 송전선로를 '2개의 깊은 상처'로 표현한다.

전기는 전북에서 생산하지만, 피해는 지역 주민이 감내하고, 산업적 이익은 수도권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그는 '에너지 식민지'라는 표현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저자는 갈등의 현장에서 역할상을 제시한다.

"전기를 보내기 위해 철탑을 세우지 말고 전기를 쓸 산업을 지역에 유치하자"는 주장이다. 이 발상은 '에너지 지식선'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되고, 나아가 '에너지=반도체' 전략으로 확장된다.

전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반도체 산업과 풍부한 전력을 가진 새만금을 연결한 구상은 전북의 산업 지위를 근본적으로 재정 의하려는 시도다.

전북을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닌 국가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바라보게 하는 논리적 전환

에너지=반도체 안호영의 혜안



이이 대목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저자가 제시하는 전북의 미래는 정교하면서도 대담하다. 그는 전북이 호남권의 역사적 연대를 유지하면서 중부권 첨단 산업과 연결되는 양손잡이 전략을 제안한다.

이는 전북을 지역의 끝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교차로로 세우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또한 14개 시·군을 5대 권역으로 재편하는 행정 대개조 구상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혁으로 제시된다.

중추도시권, 새만금권, 서만금 동남권 동북권으로 나누는 권역 재편은 균형발전과 기능 분담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전략이다.

생활 혁신을 위한 구상도 눈길을 끈다. 30분이면 도내 어디든 이동 가능한 교통체계(JIBX-BRT-DRT)는 지역 간 거리의 장벽을 허물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여기에 도민이 에너지 산업의 주인이 되는 2조 원 규모 성장펀드 구상은 정책이 곧 생활의 필요로 이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책은 산업 전략에 머물지 않고 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통한 지역 혁신도 제시한다.

KAIST 남원 AI 공공리토탈팩트스 구상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첨단 기술의 실험장으로 바꾸겠다는 시도다. 취약성이 곧 혁신의 출발점이 되는 역설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전주의 전통과 새만금의 에너지자를 결합해 전북을 '한류특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이 담겼다.

이 책은 단순히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비전 제시가 아니라 전북 도민이 겪어온 현실과 소외의 시간을 위로하고, 다시 주권자로 바로 서도록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전북이 더 이상 변방의 서러움에 머무르지 않고 중심의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그를 주목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